

Vol. 9. 2023 가을과 겨울 고창!

문화를 읽는 창



고창에 온 걸 환영한다옹
-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만난 길고양이 -



gctf.or.kr

blog.naver.com/gctf1110

instagram.com/gochang_gc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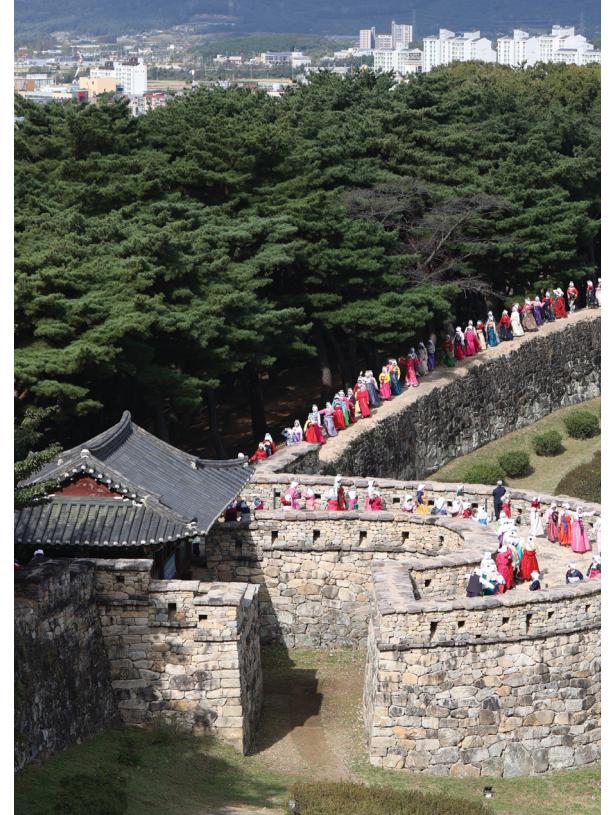


무얼 좋아할지 몰라
모두 준비했어요.
고창 방문의 해.

하늘과 땅, 빛과 바다,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며 만드는 고창.
이번 소식지에는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 방문의 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문화유산, 그리고 즐거운 축제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고창은 2023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습니다.

방문의 해를 맞아 고창에 모이고 쌓인 재미있는 이야기들.
혼자 즐겨도, 함께 즐겨도 좋은 고창의 문화와 관광을
소개합니다.



관점

50주년 모양성제 04

웃음과 온기로 가득 찬 모양성, 고창 모양성제를 다녀와서

방문의 해에 대한 견해 10

등잔 밑까지 밝히는 지역 방문의 해

대화

고창문화기획자양성사업 '익는학교', 후일담 14

익는학교, 고창에서 함께 문화를 읽고 익어갈

동료들에게 보내는 초대장

포커스인 인터뷰 20

긍지와 자부심으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윤도를 만들다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를 마치고 26

직접 디자인하고 손수 만들다.

위로를 전하는 '괜찮아 벤치'프로젝트



발견

고인돌유적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별빛기행'을 다녀와서 30

별빛 기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가을 단풍 여행 in 고창 36

낙엽 한 조각으로 붙잡아 보는 초가을 고창의 단풍 나들이

고창 여행 이모저모 40

매주 고창과 서울을 오가는 '다거점 인간'이 추천하는
고창여행 꿀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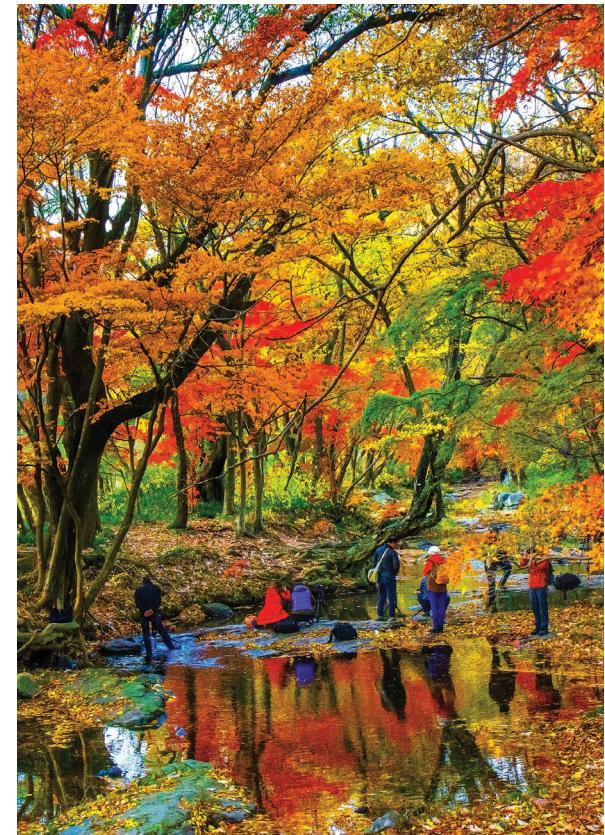
소식

유네스코 유산 아카데미 42

우리 유산의 가치를 알고,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다

2023 마을 문화경관 조성사업 46

우리마을 찬란하게





웃음과 온기로 가득 찬 모양성, 고창 모양성제를 다녀와서

글 김준우 (작가) 사진 고창군청

어느덧 쌀쌀해진 10월의 아침, 오늘은 고창읍성(모양성)에서 모양성제가 열리는 날이다. 서둘러 채비해 외출에 나서려 보니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푼 기대를 시샘하는 듯 비가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을 기다려 온 많은 이들의 즐겁고 가벼운 발걸음이 아쉬워질까 잠시 걱정이 스쳤다.
톡톡, 작은 물방울이 차 앞 유리에 내려앉아 미끄러져 올라간다. 물방울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보니 차창의 동그란 물방울이 높은 하늘 저 멀리 떠 있는 애드벌룬과 겹쳐진다. 앗, 애드벌룬 뒤, 구름 사이로 빼꼼 푸른 하늘이 나왔다!
역시, 오늘은 축제의 날이구나! 그렇게 읍내 곳곳에 등실 떠오른 애드벌룬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동안 나의 우려는 지나가는 먹구름과 함께 사라져갔다.

고창이 자랑하는 축제 중 하나인 모양성제는 197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50회 기념을 맞이한 역사 깊은 축제이다. 행사 당일 오전엔 비가 갠 후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웃깃을 여미고 삼삼오오 행사장으로 모였다. 역시 오랜 기간 한 곳에서 꾸준히 열린 행사를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이 있다. 모양성제를 보기 위해 고창을 찾은 인파로 곧 주변이 혼잡해질 것 같아 재빨리 주차 후, 동리로를 따라 모양성제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모양성 공원과 만나는 동리로에는 음식 부스들이 축제의 손님들을 기다리



고 있었다. 이곳은 ‘모양성 맛의 거리’로 고창 모양성제 먹거리 장터이다. 고창의 특산품인 장어와 복분자부터 홍어 삼합과 북경 오리까지, 다른 축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메뉴들이 맛의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각각의 부스 번호와 이름 그리고 메뉴판이 적힌 커다란 현수막을 통해 먹거리 관련 위치와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되어있어 처음 방문한 사람들도 편하게 원하는 부스를 찾을 수 있었다. 곧 허기를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모이게 될 것을 알고 있는 듯, 가게들은 가지각색의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조금 더 길을 따라가니 판소리 공원 쪽으로 고창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장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고창의 특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도 판매하지만, 농산물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2차 가공식품들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채로운 상품을 보니, 고창 농가들이 어떤 노력과 시도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농업인이 직접 만들어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다양한 먹거리와 관광자원으로 그 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면 분명 고창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활력

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고창 농업인들의 새로운 시도를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한참 동안 구경했다.

농산물 부스를 따라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길에 오거리 당산 쪽을 바라보니 작은 소무대가 꾸며져 있었다. 다양한 거리공연 및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평상들이 놓여 있었다.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예쁜 삼각형, 사각형의 그늘막을 펼쳐 놓으니 아담한 공연장으로 안성맞춤이었다. 평상 위엔 작은 다과상도 놓여 있었는데, 명석이 깔린 평상 위에서 다과상을 앞에 두고 앉으니 꼭 시골집 평상처럼 느껴져 아늑하게 즐길 수 있었다. 고개를 들어 바로 옆을 보니 파라솔을 쌓아 만든 테이블과 선베드 그리고 비치파라솔이 있었다. 가족들이나 친구, 연인들이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편안하게 축제를 관람할 수도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것 같았다. 파라솔과 선베드가 있으니 마치 해변 같기도 하여, 꼭 멀리 여행을 떠나온 느낌이 물씬 들었다. 문화의 전당 앞에는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있었다. 포토부스를 비롯해 인기 있는 체험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많은 아이들과 지역민들이 줄을 서서

체험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이와 함께한 가족부터, 젊은 연인들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모두 작은 사진 속에 오늘의 추억을 담아가는 모습이 애틋하게 느껴졌다.

잔디광장 특설무대를 지나 모양성 북문으로 향했다. 북문 앞에 또 다른 성문이 보였다. 모양성제의 주제가 드리나는 ‘백투더 1453’과 큰 시계의 형태가 그려져 있는 성곽 형태의 조형물이었다. 과거로 가는 터널을 통하니 민속놀이 공연장이 있었다. 그 앞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돌들이 놓여 있었다. 이 가벼운 돌들은 머리 위에 얹은 채 한번 돌면 다리 병이 낫고, 두 번 돌면 무병장수, 세 번 돌면 극락왕생한다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이었는데, 아이들은 마치 천하장사가 된 듯 한껏 가벼워진 돌을 던지며 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상상은 무궁무진하다. 아이들에게 스티로폼 돌은 돌이 아닐 것이다. 돌이 돌일 때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버리곤 하니까. 어른이 되어버린 나는 스티로폼

돌 하나를 주워 잠시 머리 위에 올려보았다. 두 번 돌며 무병장수를 도전하였지만 역시나 무병장수는 쉽지 않았다. 데구루루 떨어지는 돌을 제 자리에 가져다 놓으며 무병이라도 이루어지길 마음으로 빌었다.

북문 원편 성곽으로 올라가니 높은 가을 하늘엔 흰 구름이 아름답게 수를 놓고 있었다. 그리고 구름 아래엔 모양성제를 보러 온 사람들이 축제에 알록달록 수를 놓고 있었다.

위에서 바라보니 소무대 쪽에 시끌시끌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곳에 가보니 열댓 명의 어르신이 허리를 굽혀 무언가를 열심히 보다가 탄성을 지르거나 아쉬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윷놀이를 하던 것이다. “말을 이쪽으로 놓아야지!”,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야”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윷놀이에 집중하고 있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구경을 하고 있자니,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명절이





나 동네 호사가 있는 날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만들어 즐겼다. 그럴 때면 항상 어른들은 막걸리 한잔을 기울이며 웃놀이를 즐겼었다. 멀리서 들으면 싸우는 듯하지만 표정만은 신나서 웃고 있었다. 정답고 따듯했다. 해 질 무렵이 되니, 소무대에서 국악 공연이 한참이다. 가을 저녁과 잘 어울리는 소리 한 자락이 흘러나온다. 공연을 보고 나니 어느새 어둠도 슬슬 스며들어 저녁이 되었다.

해가 사라지자, 모양성제 축제는 ‘빛’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다. 구조물과 나무들을 잘 활용해 공간 곳곳에 빛이 아름답게 반짝였다.

공원의 빛을 따라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녔다. 알록달록 빛나는 빛들은 알싸한 가을밤과 잘 어울렸다. 빛 조형물을 넓 놓고 한참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빛 조형물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 사진으로 담으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 감동은 담기지 않았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눈에 충분히 담았다.

함께 걸어온 50년, 미래로 여는 100년!

50th 고창모양성제

행사기간 2023. 10.19. 목 - 10.23. 월

장소 고창읍성(모양성) 및 시가지 일원

주최/주관 고창군

고창읍성(모양성)은 조선 단종 원년(1453년) 왜침을 막기 위하여 유비무환의 슬기로 축성한 자연석 성곽이다. 고창 모양성제는 유비무환 정신으로 축성한 뜻깊은 조상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향토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고창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1973년부터 열리고 있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담성놀이와 강강술래, 거리 퍼레이드가 있고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MZ와 함께하는 모양성제’,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등이 열리며 지역 연계 첨단 CT 실증사업을 결들인 아간 멀티미디어 쇼도 준비되어 있다. 읍성 내에서는 ‘BACK TO THE 1453’을 주제로 전통놀이체험, 3성 6차 12방 프로그램(스탬프투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50th 고창모양성제 행사일정

10.19(목) 1일차	10.20(금) 2일차	10.21(토) 3일차	10.22(일) 4일차	10.23(월) 5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양성제 거리퍼레이드 · 전야제(축하공연, 불꽃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성참여고을 BIDG3 · 개막식(개막공연&드론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성놀이 · 춤타기공연 · 청소년댄스 페스티벌 · K-시험 모양성과거제 · MZ페스타(축하 공연&드론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악한마당 · 춤타기공연 · 강강술래 경연대회 · 야간답성, 강강술래달B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화합한마당 · 군민의 날 기념식 · 폐막식(폐막공연 &불꽃놀이)

등잔 밑까지 밝히는 지역 방문의 해

글 채아람 (도시문화기획자)



고창 방문의 해, 풍요롭고 찬란하게

전라북도 고창군은 2023년을 방문의 해로 지정해 365일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그동안 광역 단위(전라북도 방문의 해)로 방문의 해 사업이 진행되긴 했지만, 고창군 자체로는 첫번째 시도였다. 지난 1월 서울에서 선포식을 개최하여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지역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고창다운 관광콘텐츠로 관광객 1천만 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유관기관과 협력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 건의, 도시경관 개선 등 고창 방문의 해 분위기 확산과 성과창출을 위해 작년부터 대내외로 부지런히 움직였다.

고창군은 군이 파악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결집시켜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그 결과 고창군은 연중내내 축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월말 석정온천 지구 일대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4월 하순 청보리밭축제, 5월 바지락 페스티벌, 6월 복분자&수박 축제, 갯벌 축제, 해풍고추축제, 9월 선운산 꽃무릇 축제, 10월 제50주년 모양성제, 고인돌 미디어아트, 11월 일자리 페스티벌 등 일년 내내 특산물과 지역 자연환경을 앞세워 맛과 멋, 다양한 체험으로 방문객을 맞았다.

특히, 고창군은 올해 세계문화유산을 7가지나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되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자연유산 고창갯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 전체에 올해 이어 2건이 신규 추가되어 7개 보유는 국내 최초다. 지난 5월 세계지질공원으로 새롭게 승인된 서해안 지질명소 32개 중 고창군에 13개소가 위치해 있고, 세계기록유산으로 승인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중 고창군과 관련해 3건이 포함되었다.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소리없이 진행되어온 장기간의 노력에 비해 각각의 지역자원의 국내 인지도는 낮아 군은 적극적으로 운곡습지, 고창갯벌, 판소리박물관, 생태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잇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투어 프로그램과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을 통해 방문객이 망설임 없이 고창을 찾도록 노력했다.

또, 고창군은 전통 문화자원과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이색적인 관광콘텐츠를 만들기에 힘썼다. 그중 야간 콘텐츠를 고안해 좀더 '머무는 관광'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고창농악 야간 상설공연의 무대를 고창 곳곳으로 확대하고, 구시포 해수욕장 야간버스킹, 운곡습지 반딧불 체험, 전통시장 야시장, 고인돌 미디어아트 등을 운영하며 밤에도 볼거리 만들고자 했다. 특히 10월에 열린 모양성제는 50주년을 기념하여 최첨단 CT Culture Technology 기술을 접목해 화려한 빛의 축제를 준비했다.

관광객들이 기존에는 꽃무릇, 단풍, 핑크뮬리, 모양성제 등을 보러 대부분 가을에 고창을 찾았다면, 올해는 위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이미 상반기에 지난해 대비 총 방문객이 33%나 증가했다. 아직 연말까지 방문객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군은 방문객 1천만 명 유치 목표는 성공적



으로 달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등잔 밑까지 살피자

고창군은 방문의 해를 기획하며 '천만'이라는 야심찬 수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했다. 축제로 가득했던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군의 이면에, 매해 정주인구가 천여 명씩 줄어드는 현실과 외부로부터 인구와 자원을 유입시켜야한다는 절박함이 있기에 제시한 호기로운 목표였다고 생각한다. 고창군은 유명 관광도시에 비하여 숙박, 식당, 교통 등 시설과 인력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진 않다. 하지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기보다는 하나라도 총력을 다해 추진해보는 편을 선택한 고창군의 결정은 큰 용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까지의 경과로 보았을 때, 결국 이루어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느 지자체의 지역 방문의 해이든, 중앙정부가 사업을 견인하던 초기부터 반복되는 지적을 비슷하게 받고 있다. 지역 방문의 해는 지역관광 물리적 여건 개선, 지역 관광 주체의 역량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특히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특성 반영 대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부족 등의 한계를 꾸준히 나타냈다. 과연 올해 고창을 방문한 이들은 군을 어떻게 기억할까?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으로 기억되려면, 지역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더욱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획기적인 방문의 해를 계획하고, 보다 넓은 연령대의 관광객에게 새로운 감각을 심어주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이 동시대 감각으로 새롭게 재해석되는 과정, 즉 창의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현 정부 국정과제 119번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행정안전부를 필두로 많은 지자체에서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중기부의 정의에 따르면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한다. 이들은 유무형의 특색있는 지역 자원에 창업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침체기 지방도시에서 자생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주체로서 정책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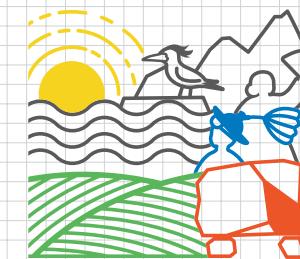
지역에 기반을 갖고 지역자원을 연구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연계해 ‘이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는 ‘지역 가치 창출가’들은 기본적으로 지역 이해도가 높고 외부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가교역할을 한다. 인구감소 시대에 관광이 단순히 일회적 소비성 방문이 아니라 지역을 반복해 방문하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로 이어져야한다면, 로컬크리에이터 역할을 하는 민간과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고창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민간주체가 공공과 엮이며 가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정부 주력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및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을 고려해 지역 내 민간주체와 사업초기부터 협력한다면, 더욱 특색있는 축제와 도시 경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크게 들여 실행한 지역 관광의 해가 외부 방문객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면 이보다 큰 수확은 없다. 지역 행사 안으로, 등잔 밑에 숨겨진 창의적인 지역 기업, 지역 기획자가 초대되어 더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의 문화와 관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고창 방문의 해 슬로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풍요롭게 찬란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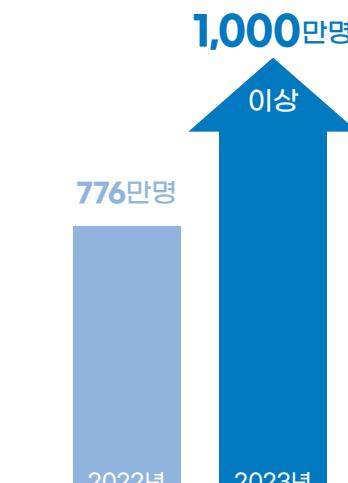
심볼마크 의미

고창의 세계유산타이틀을 모티브로 하여 고창의 문화와 자연을 상징화

슬로건 의미

- 풍요롭게 :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운 공존의 삶이 가능한 고창
- 찬란하게 : 하늘과 땅, 빛과 바다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면서 생기는 자연활동에너지를 밝고 윤택한 찬란한 빛으로 규정한 고창의 청정자연

고창 방문의 해의 성과



고창군 관광객 수

(출처: 모바일 통신데이터 수집 분석)

유네스코 세계유산
+
풍부한 역사문화생태자원

고창관광 활성화
및 브랜드화

지역경제 활력 견인
+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참고문헌

- 강지수(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영호(2022). 지역 방문의 해를 다시 쓰자. K-문화융합협회. Vol.2.
- 최경은(2012). 지역방문의 해 주요 성과 및 추진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익는학교, 고창에서 함께 문화를 읽고 익어갈 동료들에게 보내는 초대장

인터뷰 진행 황지원 (문화기획자)
사진 이지연

'익는학교'는 고창문화관광재단이 매년 운영하고 있는 고창문화기획자양성사업의 올해의 이름이다. 말 그대로 고창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전문성과 현장성을 담보한 문화기획자들을 발굴하고 연결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익는학교는 세 명의 컨설턴트(황지원(육끼), 김준우, 이지연)와 함께 지난 7월부터 8주 동안 진행되었는데,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덧붙여 현장 실행형 프로그램인 '20만원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깊은 호응을 얻었다. 지역문화기획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싹튼 것 같다. 그리고 고창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료들 사이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결망이 형성된 것 또한 이번 익는학교의 소중한 성과다. 아직 지난 여름 익는학교의 뜨거운 동료애와 즐거움이 가시지 않은 어느 날, 익는학교에 대한 후일담을 거침없이 나누어보았다. 이번 익는학교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창에서 함께 문화를 읽고, 익어갈 다양한 동료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다.

2023 문화기획자양성사업 익는학교는 고창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이 주체가 되어 7월부터 9월까지 워크숍을 포함해 총 9회차로 진행이 되었다. 수강생은 20명씩 3팀으로, 레인보우팀, 수작팀, 칠공주팀으로 나누어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은 강의, 1시간은 퍼실리레이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익는학교 후일담은 그 중 한 팀인 레인보우팀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먼저, 본격적인 후일담에 앞서서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

김유진: 고창 토박이에요. 아이 둘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전업주부였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했어요. 취미로 시작한 게 현재는 일이 되었는데 일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어요. 현재는 보자기 아트, 손뜨개 강사 그리고 램사르 습지에서 자연놀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선이: 고향은 부산인데요, 남편 직장으로 인해 20년 전 고창으로 왔어요. 고창의 풍부한 자연이 좋아요. 지금은 방과후교실에서 합창과 우쿨렐레, 플룻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선주: 저는 고창이 고향인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 결혼하고 둘째까지 낳은 뒤 다시 고창으로 왔어요. 고창에서 셋째를 낳았고요. 아이가 셋이라 한동안 육아에 전념하다 현재는 숲 해설가, 어르신 문해교육 강사, 그림책 지도사를 하고 있어요.

최선하: 우연한 기회에 고창에 왔다가 고창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었답니다. 고창에 온 지는 14년 정도 되었고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재는 저와 같은 아이 엄마 3명이 만든 행동하는 생태교육센터 '함께 지구'를 공동 운영하고 있어요.

'익는학교'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박선이: 누군가 추천하면 관심이 생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익는학교에는 이선주의 추천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주: 저는 이전의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여러 번 수강하면서 관심이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기획이 되는 경험을 해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엄마들의 북꽃놀이>라는 팀도 시작해보았고요. 이런 경험들을 주변에 많이 나누고 싶어서 이번에는 재단에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최선하: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갯벌, 해양환경 등을 이번 기회에 다른 분야랑 연결지어 보고 싶었고요.

김유진: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다 얘기가 나오면 그게 기획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하는 말들이



살롱음악회 '공감'



박선이

토대가 되어 뭔가가 만들어지는 경험을 하다 보니, 익는학교의 경험이 보태지면 좀 더 전문적인 기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신청하게 되었어요.

익는학교, 솔직하게 어땠어요?

이선주: 익는학교에서 만난 분들 중 반 이상이 이전에 알고 지낸 사이지만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었어요. 예전 기획자학교에서는 끝나고 집에 가기 바빴는데요, 이번에는 교육에서만 끝나지 않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어요. 익는학교 수료 후 밖에서 만나잖아요.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기획한 내용들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아이디어들이 확장되더라고요.

김유진: 저도 이전 문화기획자 학교의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문화기획'이란 단어도 어렵게 느껴졌었어요. 익는학교 동료들이 기획한 콘텐츠를 공유하며 함께 듣는 시간이 특히 좋았어요. 정보도 얻고 기준에 내가 가졌던 생각에 살을 붙일 수 있었거든요.

최선하: 저는 이전의 문화기획자 경험은 없지만 무언가 콘

텐츠를 기획할 때는 큰돈을 생각하며 구상하게 되는데, '20만 원 프로젝트'를 하면서 액수에 연연해하지 않고 즐겁게 기획해보았어요.

박선이: 문화예술사 자격증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할 기회가 없었어요. 익는학교에서 실전 경험('20만원 프로젝트')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익는학교에 참여해서 변화가 있었다면.

이선주: 환경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익는학교에서 기획한 '용기내용기'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서 환경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들이 늘어났다는 게 참 좋아요. 주변에 활동들이 더 보이게 되었고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 꾸준히 이어지고 싶어요.

최선하: 익는학교 동료들을 통해서 내년에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과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내년에는 구체화 해볼 예정이에요. 기대돼요.

김유진: 익는학교에서 깨달은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아낌

없이 나누는 마음이에요. 저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인맥이나 아이디어들을 나눌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걸 배우고 또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박선이: 어떤 걸 시작할 때 저는 항상 두려움이 앞섰는데 자신감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익는학교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 활동하면서 빔프로젝트도 샀어요. 이번에 해보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동화책과 음악을 다시 한번 잘 엮어보고 싶어요.

익는학교 이후를 함께 그려본다면.

이선주: 익는학교 경험에 따라서 관심도가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기초그룹/심화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제게도 또 다른 다음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에게 문해교육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어요.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계속 확장하고 싶어요.

최선하: 저도 공감해요. 이번 익는학교 멤버들이 또다시 익는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좋겠고 또 다른 분들도 만나고 싶어요. 올해까지는 교육에 집중했는데요, 이후에는 캠페인 활동을 하고 싶어요. 바다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랑 즐겁게 쓰레기를 줍고 싶어요. 음악과 미술, 운동과 같이 접목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창에 가면 즐겁게 바다 쓰레기를 주울 수 있대~" 이런 소문이 나면 참 좋겠죠?

김유진: '20만 원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예산지출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에는 예산운영 방법을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어요. 예산을 사용해보니 궁금해지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다음에는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콘텐츠 만들어보고 싶어요. 청바지 하나를 해체해보면 조각조각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구체화해보고 싶어요.

박선이: 저도 예산에 대해 배워보고 싶어요. 이번을 계기로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고요. 이번 익는학교에서는 혼자 했는데, 이후에는 두 팀이나 세 팀을 연결해서 같이 콜라보 해보고 싶어요. 서로의 활동을 연결하면서 아이디어가 모아지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이선주(팀명: 용기내용기)



용기내용기

계명이가 쓴다



<20만 원 프로젝트>

2023 문화기획자 양성사업 <익는학교>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화기획 및 실행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실행 워크숍. 참가자당 20만 원의 추진 예산을 지원받아 자신이 직접 구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기획과 집행을 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피드백)을 통해 전문성·현장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활동 종료 후 함께 한 모든 동료들의 투표를 통해 가장 흥미로운 콘텐츠를 선정하여 유쾌한 시상식까지 진행하며 마무리하였음.

나에게 익는학교는 ○○○이다.

김유진: 익는학교는 기회다! 문화기획을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익는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도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떠오를 때 여기서 만난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되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최선하: 저는 그래서 익는학교는 뒷배다!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멘토가 생겼으니까 어떤 걸 채워야 할지 언제든지 물어볼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박선아: 익는학교는 실전이다! '20만 원 프로젝트'를 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맨땅에 헤딩하면서 시작했는데요, 하고 나니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에겐 큰 변화예요.

이선주: 익는 학교는 인맥이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내 재산이 되었으니까요. 학연, 지연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익연이에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윤도를 만들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 낙산 김희수

인터뷰 진행 윤여준 사진 박기덕



밤하늘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

하늘에 북극성이 있다면 땅에는 윤도가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딱 한 곳, 고창에 전통 윤도를 만드는 윤도장 낙산 김희수가 있다.



고창 윤도와 김희수 윤도장

윤도(輪圖)란 무엇인가요?

윤도는 전통 나침반으로 지남성이 있는 바늘, 즉 자침을 활용해 지관들이 풍수를 보거나 여행자들이 방향을 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한자의 뜻처럼 바퀴 모양에 그림(문자)이 새겨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삼국시대 때부터 만들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풍수가의 전유물이었던 윤도의 용도가 더욱 다양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대부 남성들은 부채 끝에 작고 단순한 모양의 2, 3층짜리 윤도를 단 선추를 소지하고 다녔고, 여성들은 손거울과 윤도가 어우러진 면경철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해요. 마치 지금의 우리가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처럼 그 시기에도 윤도를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어 정확히 방향을 살피며 다녔던 것이죠.

또한 윤도는 단순히 방향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총마다 다른 정보를 넣어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유용한 물건이에요. 풍수지리, 사주팔자, 별자리 등을 각각의 층에 새겨 넣을 수 있죠. 윤도 하나 속엔 동양 철학과 사상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마치 우주처럼, 세상 만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요.

현재 전 세계에서 전통 기법으로 윤도를 만드는 곳은 이곳, 고창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창에서는 언제부터 윤도가 만들어졌나요?

조선 시대에 고창은 흥덕현, 무장현 그리고 고창현이 있었는데, 이곳은 흥덕현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 윤도는 흥덕폐철라고도 많이 불렸죠, 흥덕현에서 윤도가 만들어진 역사는 300여 년이 넘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지요. 첫 시작은 전씨_{全氏}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현재 전승자 중에 전씨는 남아있지 않고 한씨_{韓氏}와 서씨_{徐氏}, 그리고 다시 한씨에게 이어진 후, 저의 증조부 김권삼 장인이 전승받아 지금 까지 저희 김씨_{金氏}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백부 김정의 장인에게 저희 아버님 김종대 보유자가 이어받았고, 다음으로 제가 4대째 전승받아 윤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고창의 윤도는 유명했다고 해요. 저희 흥

덕현의 제성산_{帝城山} 꼭대기에 거북바위가 있어요. 그 거북바위에 7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요. 거기에 윤도를 올려놓으면 놀랍게도 딱 들어맞아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거죠. 다들 처음엔 바위가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며 거북바위를 생각하는데, 거기에 윤도를 올려놓으면 너무 정확해 깜짝 놀라곤 해요. 그러니 “고창의 윤도가 최고다” 하는 소문이 나 흥덕폐철이 흥하게 된 거죠.

거북바위에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저희도 몰랐는데 한 교수가 와서 보더니 거북바위가 고인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창이 워낙 고인돌이 많은 곳이긴 하지만 거북바위도 고인돌일 줄은 몰랐어요. 현재에는 고인돌이라는 안내 팻말도 설치된 상태예요. 선사시대의 고인돌이 이 오랜 시간동안 윤도의 기준점이 되어 주었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선사시대 때에 우리 조상들도 고인돌을 놓을 때 방향을 고민하며 놓았을 거잖아요. 해가 뜨는 동쪽과 해가 지는 서쪽을 인지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아마도 어림잡아 놓았겠지만, 아주 정확했던 거죠. 거북바위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선조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인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더욱 특별해졌어요.

지켜지고 이어지는 전통의 맥

증조부부터 윤도의 전승이 이루어지던 집안에서
자라셨으니, 자연스럽게 윤도를 접하셨을 거 같아요.
어린 날에도 윤도장인을 꿈꾸셨나요?

맞아요. 저는 윤도를 언제부터 했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윤도를 만드는 과정을 봐왔으니까요. 어린 날엔 신기한 장면들이었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아주 작은 바늘의 구멍을 뚫고, 나무에 글씨를 새기고 하니까요. 제가 더 구경하고 싶어 옆에 가면 할아버지는 매번 저리 가라고 했었어요. 방해가 되었던 거겠죠. 어릴 때부터 봄와서인지 81년에 대학교에 들어간 후 윤도를 한 번 해보아야겠다고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글씨를 파야 하는지 누가 안 알려주어도 알 것만 같았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끝이 기억나더라고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주 어린 날부터 윤도장인을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조금 큰 후 학창 시절엔 어렴풋이 ‘이 전통을 내가 이어가야 할 수도 있겠구나!’ 했던 거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마음 한편에 지닌 채로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건설회사에 14년이나 다녔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윤도장을 전업으로 삼고 살진 않았죠. 하지만 그 시기에도 꾸준히 윤도를 만드는 것을 연마해 왔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땐 주말마다 집에 와서 배우고, 서울에서 회사 다닐 땐 주말마다 집에서 윤도에 글씨 파는 걸 연습했어요. 아버지가 연습용 나무를 택배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받아 주말마다 연구하고 실습을 한 거죠. 윤도가 제게 잘 맞는다고 느꼈던 거 같아요. 퇴근한 후나 주말에 이걸 하려면 싫을 수도 있는데, 전 꽤 재미있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70세쯤 되셨을 때 눈이 안 좋아지시며 글씨를 잘 못 파시게 되었어요. 그때 결심을 하게 되었죠. 큰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이 전통의 맥을 꼭 이어주라고 당부하셨었대요. 350년이 넘은 전통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일본 같은 나라는 국수집도 몇 대째 이어지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오래도록 이어진 전통을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고창으로 내려와 윤도 작업을 더욱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이곳에 와서 윤도장에 몰두한 건 17년 정도 되었고, 서울과 고창을 오가며 윤도를 연마해 온 건 별써 40년이 되었네요.

명예보유자 김종대 장인이신 아버님과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전 일부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도 빨리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작업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총명함을 잃을까봐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92세 되셨는데요. 윤도장을 오래 하셔서인지 아직도 아주 건강하셔요. 그래서 요즘도 작업실에 오셔서 윤도 바늘을 만드셔요.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작업에 아버지가 함께 해주니 힘도 나고 좋죠. 일도 효율적이고요.

글씨는 아버지가 못쓰게 되신지 좀 되어, 제가 쓰는데요. 글씨는 신기하게 사람마다 필체가 다르듯 윤도에 새겨진 글씨체도 아버님과 제가 달라요. 큰 할아버지과도 다르고요. 그래서 윤도를 보면 누가 만든 윤도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다음 세대에도 윤도장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분들에게 전수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전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버님이 그랬듯, 저 역시 제 다음 세대로 넘겨주어야 하는 책임감이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윤도를 이렇게 전통 기법으로 만드는 곳은 여기 하나예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다음을 잊지 못하면 이 오랜 전통이 끊기게 됩니다.

윤도장으로 산다는 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고, 작업이 고되서 많이들 하고 싶지 않아 하죠. 사실 제 자녀도 지금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자신의 일을 착실히 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부르게 윤도장을 전업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나 윤도 기술을 전수하고 있어요. 직접 이곳에 와서 전수받을 때도 있고, 제가 교육 용품들 쟁여서 서울 쪽으로 가서 교육할 때도 있고요. 윤도의 장점 중 하나가 크기가 큰 장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각 연습할 것들 쟁여서 가는 거죠.

그래도 제 자녀들이 꾸준히 윤도를 이어갔으면 해서, 지금 저희 창고에는 좋은 나무를 많이 모아 두었어요. 대추나무를 가져오면 10년 정도 그늘에 놓아야 수분이 빠져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나무는 자르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좋은 나무라 저희 아버지도 종종 그거 잘라서 쓰라고 하시는데, 제가 쓰면 제 다음 세대가 쓸 나무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나무를 구하려면 다시 나무를 100년 200년 키울 수도 없고, 또 10년 넘게 말릴 수도 없으니까요. 욕심내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양보하자 생각하며 잘 관리하고 있어요.

한 글자씩 새긴 긍지와 자부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다.

**요즘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윤도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저는 새벽과 겨울에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낮에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 보니 집중력이 끊길 때가 많아 세밀한 작업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글씨를 새기기 시작하면 집중해야 하니 평소엔 주로 저녁 이후나 새벽에 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는 겨울엔 오랜 시간 집중하기도 하



죠. 글을 새길 땐 스탠드를 두 개 켜놓고 하거든요. 굉장히 밝게 해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 4시간 이상 하면 눈이 아파서 잠시 쉬어야 해요.

소요되는 시간은 크기에 따라 달라요. 5층짜리 작은 윤도를 만들 땐 일주일 정도 집중해 만들고요. 24층짜리 규모가 있는 윤도를 만들 땐 10개월에서 1년도 걸리죠. 과정이 간단한 거 같은데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해 시간이 꽤 걸려요. 지침 하나 만드는 데에도 강철을 두드리고 같아 모양을 만들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노쇠를 박아 균형을 맞춘 후, 또 다른 구멍을 뚫어 밑에서 지탱하는 힘까지 균형을 이뤄 내야 해요. 이게 어떤 날엔 이상하게 하루 종일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럼 참 난감하죠. 우리가 만드는 윤도는 시중 나침반처럼 바늘이 달랑달랑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안 되어서 더 정교함이 필요하죠. 균형이 안 맞을 때면 아주 조금씩 갈아내면서 그 균형을 맞추어 나가요. 그 이후에 담금질이라고 해서 불에 구운 후, 운석으로 자력을 입히죠. 작은 쇠바늘 같지만,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과정이 녹아 있어요.

윤도를 만드는 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대량 생산은 불가하니 증조할아버님이 작업하실 땐 저희 윤도를 사기 위해 고장 흥덕면까지 걸어와 이곳에서 윤도가 만들어지는 동안 기다렸다가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차도 없이 걸어왔으니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우리 집 사랑채에서 숙식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 할아버님이 만드신 윤도는 작은 게 많아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고창의 전통 윤도 제작은 첨단 기계도 따라갈 수 없는 세계 유일의 작업이라 들었어요. 여전히 기계가 못 이기는 인간의 솜씨가 있다는 것이 반기운데요. 이 유일함을 만들어 내는 제작 과정의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우선 저는 대추나무에 만들어요. 대추나무는 돌보다 단단해 웬만한 사람은 한 일자도 새길 수가 없죠.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연마가 필요해요. 그 정도는 연습해야 글씨를 팔 수가 있어요. 오랜 기간 연습이 필수인 거죠. 요즘은 기술이 발전했으니 레이저로 파면 되지 않냐고도 하는데, 새겨야 하는 글자가 너무 세밀해 나무가 다 타버립니다.

다. 동판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나무엔 이렇게 작고 정교하게 새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모방을 못해요. 기계로 똑똑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손끝의 예민함과 끈기가 있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기가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이북의 한 곳을 제외하고, 남한에선 저희가 유일했어요. 그만큼 쉽게 모방하기가 어려운 영역인 거죠. 지금은 중국과 일본에도 없어요. 예전엔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통 윤도의 제작을 이어 나간 곳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제 프레스로 찍어서 동판을 만들거나, 인쇄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윤도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윤도를 만드실 때 이 윤도가 어떻게 사용되길 바라며 만드시나요?

저는 윤도를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윤도에는 모든 동양 사상과 철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도를 만들며 이 윤도를 사용할 사람이 인생의 좋은 방향을 잘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곧게 가기만 하긴 어렵잖아요. 하지만 잠시 헤매도 윤도가 있다면 내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 찾을 수 있죠. 윤도는 뒤집었다가 다시 놓아도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니까요.

그래서 무언가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윤도를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윤도가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는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또 윤도는 어지간 해선 고장 나질 않거든요. 지금까지 고장 났다고 온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100년이 되어도 방향을 정확히 가리켜요. 언제 어디에 있어도 나아갈 방향을 잘 알기를 바라는 마음을 윤도에 담고 있어요.

고창 윤도 전수관을 직접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곳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2003년에 고창군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만들었어요. 제가 건설회사에 있었으니 직접 저희하며 만들었죠. 제가 직접 나서서 만든 이유는 여기가 국가 전수관이 아니라 개인 전수관이기 때문이에요. 전국에 개인 전수관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수관을 만들어 주곤 하는데, 우린 아무도 안 만들어줘서 직접 만들게 된 거죠. 마음 같아서는 더 변화한 읍내에 전수관을 크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윤도의 전통과 역사를 알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여길 만들어 관리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전시도 보실 수 있게 열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있어요. 가족이 찾아온 것처럼 차도 내어드리면서 안내해 드리죠. 어린 아이들도 단체로 오면 간단한 체험학습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윤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면 해서 여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윤도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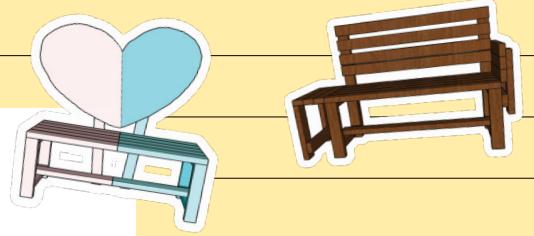
- ① 모양 만들기 - 대추나무를 다듬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 ② 정간하기 - 중심을 잡고 충수를 정한다.
- ③ 각자하기 - 글씨를 새겨 넣는다.
- ④ 색 입히기 - 표면에 먹칠을 한 후, 중앙원을 다듬고 글씨에 옥돌가루를 칠한다.
- ⑤ 지침 만들기 - 얇게 지침의 모양을 만들고 운석과 함께 놓아 자력을 입힌다.
- ⑥ 마무리하기 - 지침을 균형 맞추어 얹고 마무리 원을 그린 후 거북바위에서 자오를 맞춘다

직접 디자인하고 손수 만든다. 위로를 전하는 ‘괜찮아 벤치’프로젝트

글 최이수 (고창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
담당자 이준호, 박 민 (고창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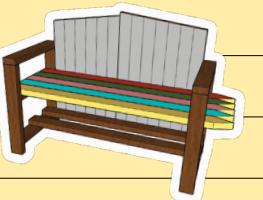


‘괜찮아 벤치’프로젝트는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여 학생들이 공동체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8월~10월, 3개월간 무용, 미술, 목공 실습 등 다양한 워크숍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며 공동체 인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창문화관광재단, 목 공실습 사회적기업 <사각사각>, 퍼실리테이터의 고창청년공동체 <짓다>, 무용·미술 수업의 예술강사등 15명의 참여인력들이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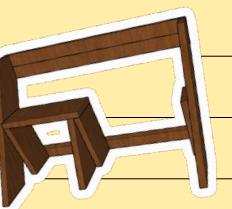
치유되는 그 이름,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재)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프로젝트 이름 ‘괜찮아 벤치’를 보니, 웬지 그 벤치에 앉으면 무엇이든 치유될 것만 같았다. 그렇게 프로젝트에 지원한 후, 나는 자유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술 강사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함께한 아름다운 사람들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는 벤치를 만들기만 하는 단순 목공체험이 아닌, 몸으로 느껴보기, 드로잉으로 아이디어 표현하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나의 역할은 학생들이 벤치 작업의 아이디어를 시작화할 수 있도록 드로잉 강의를 하고, 활동 중 미술적 요소를 돋는 것이었다. 드로잉 강의를 준비하며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많은 생각을 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그리는 방법이 아닌 벤치에 담고 싶은 마음부터 적용하고 다음으로 기능을 논의하면서 여러 의견을 하나의 이야기로 모아가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벤치는 하나의 가구가 아닌 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미학적 관점으로 성장해 나갔다. 그리고 나아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까지 발전될 수 있었다.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가 단순한 목공과 다를 수 있는 건 이런 논의가 실현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만드는 ‘괜찮아 벤치’는 벤치에 앉아 치유 받을 사람들보다 함께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다양한 마음을 담고자 노력한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 같다. 프로젝트의 치유 효과는 퍼실리테이터로 함께해 준 고창청년공동체 <짓다>의 선생님들이 계셔서 더욱 빛났다. 학생들과 함께 별명 만들기부터 몸과 마음을 다해 멋진 촉진자 역할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에서 운영까지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의 꼼꼼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간식과 장갑, 마스크, 앞치마, 야외 활동을 위한 선캡까지 배려의 왕이 아닐 수 없다. 재단의 배려와 자유중학교 학생들이 함께한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의 과정을 친구들의 이야기와 함께 돌아본다.



모두의 마음을 담아요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를 통해 먼저 디자인의 기본인 형태 그리기 방법을 익히고, 벤치와 연관된 이미지를 떠올려 가며 나만의 이미지를 그려보았다. 이후 모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의견을 모았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친구들은 이 부분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모둠 안에서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더 좋다면 토론하는 모둠이 있는 반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던 모둠까지… 서로 다른 고민으로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모둠이 그들만의 이야기와 기능을 담은 드로잉을 완성시켰다. 참여했던 3학년 준이는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설명할 때 힘들었지만 모둠의 친구들이 ‘잘했다’, ‘예쁘다’ 이런 격려와 칭찬으로 함께 해줘 보람되었다”고 말했다. ‘괜찮아 벤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재단도, 퍼실리테이터도, 직접 제작에 도움을 준 목공 선생님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벤치의 모습을 기대하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색연필로 만든 것 같은 화려한 디자인부터 친구들과 과자를 나눠 먹기 편리한 구조의 벤치, 휠체어를 타셨던 엄마를 생각한 벤치, 크기를 키울 수 있어 많은 친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벤치, 의자의 형태와 색이 유명 햄버거 브랜드를 닮은 벤치까지 어느 하나가 비슷하다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생각들로 표현 되었다.



뜨거웠던 여름 8월부터 10월까지 우리들의 이야기

“단순히 사람들이 쉬는 공간에 벤치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능을 담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만들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강현(자유중3)

“처음엔 당황스럽고 어색하였지만 퍼실리테이터 선생님들의 친절한 안내와 도움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벤치를 만들고 싶었는데, 정말 상상했던 것처럼 완성돼서 놀라웠습니다.”
박은솔(자유중3)

“제가 만들려고 했던 디자인에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어요. 간식 시간이 특히 좋았어요. 그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친해졌거든요. 어려웠던 점은 벤치 제작할 때 힘들었어요. 한 곳을 고정하면 다른 부분이 또 부서지고 또 고정하면 다른 곳이 부서지고 해서 어려웠던 거 같아요.”
김태우(자유중2)

“저희 모둠의 벤치는 일반적인 편안함과 거리가 멀어요. 벤치의 절반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한쪽은 비어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셔서 휠체어를 타셔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벤치의 한 공간을 파서 거기 휠체어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편안함을 위한 벤치보다 메시지를 전하는 벤치가 완성된 것 같아 좋습니다.”
최준(자유중3)

“같은 모둠 친구들끼리 벤치의 각자의 설계도를 그려서 각자만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공유했잖아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고, 하나하나씩 차근히 만들어가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강현(자유중3)

“똑같은 벤치의 형태에 그림만 다른 디자인으로 모둠의 아이디어가 표현 될 줄 알았는데, 모둠마다 다른 형태의 디자인이 나오고 그 디자인이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질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김진욱



나의 첫 텁질, 망치질, 그리고 친구들의 배려

중학생 친구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벤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괜찮아 벤치’의 가장 큰 매력은 나만의 아이디어를 담아 목공을 직접 해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목공은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먼저,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준비하고 디자인이 확정된 후 목재, 톱, 드릴, 망치, 나사 등을 준비한다. 자신의 손으로 목재를 절단하고 조립하면서 벤치가 점차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다. 함께 고민한 디자인을 직접 제작해보고, 나만의 창작물을 갖게 된 것은 모두에게 뿌듯함을 안겨 주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한 학생들은 목공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예술적인 감각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되어 주었다. 함께 했던 3학년 은솔이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 고민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친구들의 도움과 선생님들의 지원이 있어 든든했다”고 후기를 전했다.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꼭 필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태우의 이야기처럼 참여한 학생들은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가 단순한 목공 체험활동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한다. ‘중학교 생활 중 제일 추억에 남는 활동’이자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활동’, ‘창의성의 힘을 느낀 활동’ 등 각자 느낀 점은 다르지만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던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한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는 배려와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매우 흥미롭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직접 손으로 벤치를 만들고 그것에 어떤 마음이 어떻게 녹아 들었는지를 탐구해 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한 (재)고창문화관광재단과 고창청년공동체 <짓다> 선생님, 사회적기업 <사각사각>, 그리고 무용, 미술 선생님들께 아이들을 대신해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별빛 기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돌에 깃든 영혼, 별똥별의 힘
그리고 마법 같은 이야기를 찾아서

글 조은진 (시고르자브지 에디터) 사진 박기덕, 고창군청

2023 고창 고인돌유적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별빛 기행'이 2023년 9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고창 고인돌유적과 고인돌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졌다. '별빛 기행'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 다시 순환하기 시작하는 삼천 년의 시간 여행'이라는 스토리로, 고고학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본 행사는 11개 존(zone)에 11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인류의 지혜이자 고대의 염원을 간직한 고인돌의 이야기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함께, 3000년 전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깨어나는 고인돌

고인돌 유적지의 메인 광장에는 계산리 고인돌이 있다. 이 곳으로부터 4km 떨어진 계산리의 용수로 공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무게가 자그마치 90톤이나 된다. 10톤짜리 고인돌을 사람의 힘으로 드는 데 몇 명이 필요한지 실험해 보았는데, 약 100여명이 힘을 썼다고 한다. 90톤이면 그 9배의 인력이 필요한 셈이다. 계산리 고인돌은 우람한 모양새가 소를 닮았다고 해서 황소 고인돌이라고도 불린다. 고인돌 박물관의 마스코트이기도 한 이 고인돌에 별빛 기행의 첫 번째 이야기를 담았다. 고인돌의 3면에 미디어 기술을 적용해 고창 고인돌의 마스코트인 '모로모로'가 나타나 시간의 문을 열고 길을 안내한다는 이야기를 표현했다.

떨어진 별

황소 고인돌을 마주보고 오른쪽에 고인돌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은 건물 자체의 형태를 바둑판식 고인돌을 형상화 했다. 박물관 외벽에서는 프로젝션 맵핑 그리고 사용자 인

터랙션 방식을 적용해 별빛 기행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간다. 밤이 되면 숨겨져 있던 공간이 나타나고 고인돌과 별빛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함께 노래하는 것은 고인돌과 별빛만이 아니다. 사용자가 특정 위치에 서면 별빛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마치 별과 돌의 노래에 함께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고인돌은 단순히 지배자의 무덤뿐만 아니라 천문 관측대로 사용되었다. 별을 보며 고대인들은 우주의 지혜를 탐구하고 그것을 후대에 이야기로 전했으며, 부족의 안녕을 염원했을 것이다. 잠시 현재의 시간을 멈추고 고대의 노래와 함께한 순간이었다.

속삭이는 숲

'속삭이는 숲'에서는 별빛의 힘으로 물든 숲길을 따라 과거의 속삭임이 이어진다. 마치 별빛이 아름다운 지혜로 고대인들을 안내했던 것처럼 말이다. 반짝이는 숲길을 따라가면, 여러 가지 형태의 고인돌을 만날 수 있다. 탁자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 개석식 고인돌, 지상 석곽식 고인돌 등 종류도 형태도 모양도 가지각색이다. 그렇다면 고인돌을



왜 만들었을까? 지배자의 무덤인지, 제단이었는지, 천문대였는지는 아직도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돌은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무한한 상상의 이야기를 속삭일 뿐이다. 속삭임을 들으며 숲길을 걸어보자.

시간의 다리

시간의 경계를 잇는 시간의 다리를 넘어 고인돌의 속삭임은 더욱 선명해진다. 다리 너머에는 2000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유적지가 있다. 고인돌은 전 세계적으로 6만기 이상이 있는데, 한반도에 3만기 이상이 있다. 그 중 고창에는 443개의 고인돌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인돌을 옮기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만큼 이곳은 고대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사람들을 모아게 하는 힘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있다. 3000년 전에는 바다의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5m 이상 높았는데, 서해안의 바닷물이 이곳 바로 앞까지 들어왔다. 4대 문명의 발상지에 모두 강이 있었듯이, 고창은 그만큼 3000년 전부터 먹거리가 풍부했다. 현재 고창의 수박, 멜론, 복분자 등 맛있는 먹거리가 많은 것도 그 이유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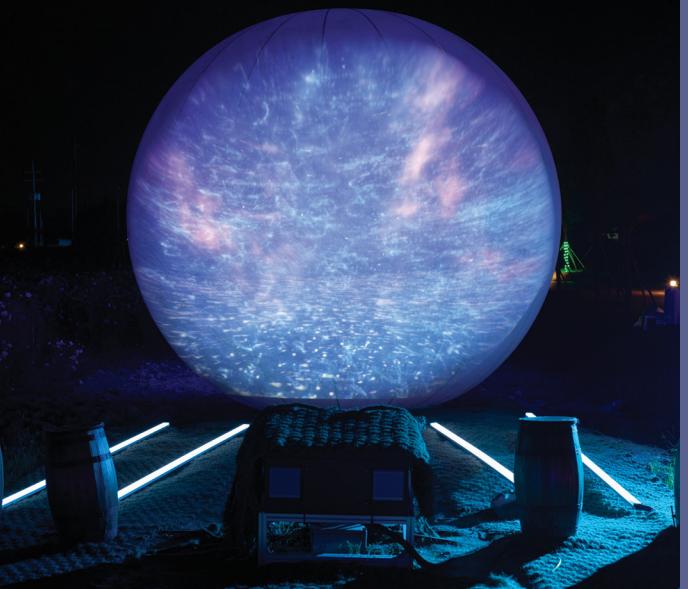
선조의 빛과 피어나는 연못

'떨어진 별' 외에 사용자 인터랙션 방식의 참여형 체험존으로는, '선조의 빛'과 '피어나는 연못'이 있다. 먼저 '선조의 빛'은 떨어지는 별똥별을 바라보며 나의 소망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북을 두드려면 나의 소망에 선조의 빛이 화답한다. 4개의 북을 두드려면 각각 다른 텍스트가 나타나 '고창 고인돌 미디어 아트'라는 글자를 완성한다.

'피어나는 연못'은 별똥별이 떨어진 뒤 연못에는 신비로운 힘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실제 연못에 수면 맵핑 방식의 기술력을 구현했다. 손을 내밀면 선사 시대의 형형색색 물고기들이 따라온다.

염원의 길

반딧불이 가득한 코스모스 산책길을 걸어보자. 고창의 운곡 람사르 습지와 산의 경사면을 활용한 계단식 논에 사는 반딧불의 이야기다. 반딧불은 애벌레에서 껌질을 6번 벗고 나서야 성체가 된다. 성체가 되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기간은 고작 2주, 6월에서 8월 사이다. 2주 동안 이슬을 먹



으며 알을 낳고 죽는다. 반딧불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생태 환경의 복원 지표로 사용된다. 반딧불이 사는 고창의 운곡 람사르 습지는 스스로 복원하고 치유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1980년대 영광에 한빛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발전용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 운곡댐 건설이 시작되었다. 9개 마을, 158세대, 360명이 고향을 떠났고, 삶의 터전이었던 계단식 논도 버려졌다.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수의 수질 관리를 위해 사람의 접근을 제한시켰고, 주변의 고인돌 유적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었다. 이는 습지가 스스로 복원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30여 년 동안 사람의 무관심 속에 저수지와 옛 계단식 논이 이루는 습지의 생태계는 서서히 복원되었다. 람사르 습지에는 반딧불이를 비롯해 860여 종에 이르는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정령의 나무와 드론쇼

별똥별이 떨어지는 고대 정령의 나무를 형상화한 공간이다. 드론 쇼가 바로 옆에서 진행됐다. 아나운서의 해설과 함께 10분 간 드론이 고창 농악, 고창읍성, 동학농민운동의 전봉준 장군 등의 형태로 밤하늘을 수놓았다. 드론의 정교한 기술력으로 마치 운곡 습지에 사는 반딧불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CIRCLE OF LIFE

순환을 이루는 오행의 힘은 온갖 생명이 가득한 순환의 정원을 만들어낸다. 프로젝션 맵핑과 미디어파사드의 기술력, 그리고 음악까지 융합한 멋진 콘서트가 오후 7시부터 15분 간격으로 펼쳐진다. 선사시대 고인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30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영감의 선사마을 그리고 그림자 축제

별똥별이 불러낸 힘은 고대의 기억을 불러낸다. 선사시대의 기억을 품은 움집에서는 고대의 일상이 펼쳐진다. 움집은 땅을 50~60cm를 파고 나무기둥을 세운 후 나뭇잎이나 짚을 엮어 지붕을 엮어 만든다. 한자로는 수혈壘穴식 주거지인데 우리말로는 땅을 움푹 파서 지었다고 해서 움집이다. 돌을 갈고, 불을 피우는 등의 생활 모습을 그림자 형태의 영상과 실감나는 효과음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한 최고의 형태는 마법과 같다고 한다. 이번 별빛 기행은 선사시대의 정신과 염원을 마법과도 같은 기술력으로 구현했다. 또한 고인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고창의 자연이 간직한 아름다움을 쉽고 친숙한 이야기로 전했다. 고대에 고인돌은 험난한 자연 세계에서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 있는 영속성의 상징 그 자체였다. 미디어 아트의 기술력은 과거의 지혜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상상하게 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되었다. 돌에 깃든 영혼, 별똥별의 신비한 힘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그 순환에 참여하는 주체임을 일깨운다. 고인돌이 간직한 지혜의 열쇠는 마법과도 같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후대에 어떻게 전하고 이어나갈 것인가에 있다.



참고)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김재은 선생님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연합뉴스>,
2021.05.29.

낙엽 한 조각으로 붙잡아 보는 초가을 고창의 단풍 나들이

선운산 도립공원과 문수사 단풍나무 숲

중국 최고의 시인 두보(杜甫)는 <곡강1(曲江1)>에서 ‘꽃잎 한 조각 날려도 봄이 가는데 바람에 꽃잎 마구 떨어지니 진정 근심스럽구나*’라 썼다. 봄이 빠르게 떠나버릴까 걱정하는 두보의 마음은 가을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같다. 낙엽 한 조각만 떨어져도 가을이 지나가 버릴까 조마조마해졌다. 절정 시기보다 2주 이른 10월의 어느 주말, 선운산 도립공원과 문수사 단풍나무 숲에 도착했다. 푸르른 잎사귀와 불그스름한 낙엽이 함께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조금 이른 단풍 나들이를 소개한다.

글 윤여준 (작가) 사진 고창군청



선운사 도립공원

- 주소: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
- 입장료: 4,000원 (2023년- 고창 방문의 해로 무료입장)
- 주차시설: 있음
- 단풍 절정 예상 시기: 11월 둘째 주

10월의 하늘은 유독 높고 맑다. 아름다운 하늘을 지닌 주 말이어서일까 아직 단풍 절정 시즌이 되지 않았음에도 선 운산도립공원에는 수많은 나들이객이 가을을 즐기고 있었다. 2023년은 고창 방문의 해로 선운산 도립공원은 입장료 및 주차비를 무료로 전환하여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었다. 선운산은 도솔산으로도 불리는데, 선운은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도솔은 미륵불이 있는 도솔천공을 의미한다.

선운산도립공원은 입구부터 선운사까지 계곡이 길게 이어져 있어, 물길을 따라 걷는 매력이 있다.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군밤, 은행, 어묵 등을 파는 작은 장터를 만날 수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 맛있는 냄새에 흘린 듯 가게에 들어가자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요기할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그곳에 앉아 고창의 특산품인 복분자 주스와 차가운 계절의 별미 어묵 한 꼬치를 먹고 있자니 비로소 가을을 만난 기분이 들었다.

가을의 맑은 햇빛은 길게 이어지는 계곡에 아름다운 윤슬을 수놓았다. 반짝이는 물길을 따라 10분 정도 걷다 보니

*두보의 시 <곡강(曲江)> 시리즈 중 가장 유명한 첫 수의 첫 문장으로,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一片花飛減却春 (일편화비감 각춘) 風飄萬點正愁人 (풍표만점정수인).





선운사가 나왔다. 선운사로 가는 길엔 단풍보다 푸르른 나뭇잎이 더 많았는데, 선운사 안에는 조금씩 붉게 물들어 가고 있는 단풍들이 보였다. 해가 잘 드는 양지바른 곳이기 때문일까, 선운사는 주변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을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았다. 선운사에서 가장 먼저 가을을 만끽하고 있는 건 주렁주렁 매달린 선홍색 감이었다. 곳곳에 있는 감나무에 탐스럽게 익은 감들은 단풍보다 조금 빠르게 선운사에 가을을 가져다주었다.

선운산은 높지 않은 산이라 가파르지 않게 산행할 수 있는 등산코스를 갖추고 있다. 길이는 10~12km로 짧지 않지만, 고도가 높지 않아 등산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완주할 수 있다. 선운산의 봉우리인 수리봉에 오르면 멀리 서해바다까지 보이니 날씨가 좋은 가을날, 수리봉까지 완주를 도전해 보아도 좋다.

문수사는 선운사에 비하여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고창의 숨은 보물이다. 특히 문수사의 단풍나무 숲은 천연기념물에 등재될 만큼 아름다운 가을 경관을 자랑한다. 문수사 단풍나무 숲은 문수산 입구부터 문수사의 입구까지 이어지는 약 80m 거리의 단풍나무 숲길이다. 문수사 단풍나무 숲의 역사는 백제 의자왕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시절 문수사를 만들면서 사찰림을 단풍나무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수령이 100년에서 400년으로 추정되는 역사 깊은 단풍나무 5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어 단풍나무 숲으로는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등재되었다.

문수사의 일주문 옆에 위치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5분 정도 걸어 올라오면 바로 단풍나무를 만난다. 산을 오르니 산림이 워낙 무성하여 모두 붉게 물들진 않았지만, 해를 받는 나무의 꼭대기부터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모습이 마치 빨간 모자를 쓴 나무 같아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문수사는 단풍나무 숲을 따라 걷다 보면 10분 내로 도착 할 수 있다. 수백 년을 버티고 살아온 오래된 나무는 인간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위엄을 풍긴다. 문수사의 커다랗고 아름다운 수형의 단풍나무들 앞에서 작은 소망을 빌었다. 오랜 세월을 지켜온 나무에 마치 영험한 힘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단풍나무가 소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으나, 멋진

풍경 속을 걸으며 지쳐있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단풍나무 숲을 걸으며 만난 평화로운 마음이 함께 한다면 나의 작은 소망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선운산 도립공원과 문수사 단풍나무 숲은 11월 첫 주에서 둘째 주에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 두보의 말처럼 바람에 낙엽이 마구 떨어지는 가을 한복판에는 금세 이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갈까 싶어 근심이 몰려올 테지만, 어쩌면 가을의 단풍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머물다 가기에 더욱더 찬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닐까. 단풍은 일 년 중 열흘 정도의 아름다움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에 충분하고, 그 찰나를 위해 우린 일 년의 시간을 기다릴 만하다.



문수사 단풍나무 숲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수면 칠성길 135
- 입장료: 무료
- 주차시설: 있음
- 단풍 절정 예상 시기: 11월 둘째 주

매주 고창과 서울을 오가는 ‘다거점 인간’이 추천하는 고창여행 꿀팁

글 이지연 (문화예술기획자)



이미 빽빽한 대도시에선 결코 생성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적 상상이 비교적 여백을 간직한 소도시에선 가능하지 않을까는 기대감으로 3년 전 고창으로 이주하였다. 일주일을 서울에서 3일, 고창에서 4일로 나눠 지내는 삶을 사는 ‘다거점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온 지 어느새 3년이다. 나는 ‘다거점 인간’으로서 그간 서울과 고창을 효율적으로 이동하기와 고창에서 보내는 시간을 귀하게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마해왔다. 특히, 이번 지면을 통해 고창을 다양한 관점으로 느낄 수 있는 여행 플랫폼을 소개하고자 한다.

고창‘으로’ | 이동 방법

1. 버스: 센트럴시티 호남선 → 흥덕 → 고창

나는 주로 버스를 타고 서울과 고창을 오간다. 고창은 기차역이 없다 보니, 환승하지 않고 직행으로 오는 방법이다. 우등은 24,700원, 일반은 19,000원이며 3시간 10분이 소요된다.

- Tip 1. 우등버스는 버스회사별로 버스 컨디션이 조금 다르다. 호남고속과 대한고속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종아리 받침대가 있는 좌석이라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Tip 2. 정안알밤휴게소에서 10~15분간 잠시 정차하는 시간을 갖는다. 휴게소의 이름답게 밤을 활용한 음식이 별미이다. 공주밤빵, 군밤, 군밤요거트를 추천한다.
- Tip 3. 서울 외 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해 고창으로 오는 계획이라면 전주, 정읍, 목포, 광주를 경유 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고창으로 오는 시외버스가 비교적 많이 배치된 지역이다.

2. 기차: KTX(서울/용산역) SRT(수서역) → 정읍역 → 고창

이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정읍을 경유할 필요가 있다면 기차를 이용하기 추천한다. 서울에서 정읍역까지는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되며 버스보다 이동 시간을 반절로 단축할 수 있다. 정읍역에서 고창으로는 약 30분이 소요되며 이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정읍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창행 버스 탑승(4,200원)
- ② 정읍역에서 쏙카 대여
- ③ 정읍역에서 택시 이용 (정읍역→고창군청 기준 3만 원대)

Tip 1. KTX라고 이동 시간이 다 같은 건 아니다. 서대전을 경유하는 KTX는 2시간 35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차별 소요 시간을 꼭 확인하여 예약해야 한다.

Tip 2. 만 25세부터 33세의 청년이라면 코레일 멤버십에 가입한 뒤 ‘힙내라 청춘’ 서비스를 이용하기 추천한다.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 앱이나 홈페이지로 사전예약하면 최소 10%에서 최대 40%의 운임할인이 가능하다. 할인 좌석이 많지 않으니 이동계획이 세워졌다면 빠르게 예약하기!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임산부, 다자녀, 4인 동반석 등 다양한 할인 방법이 있으니 사전에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Tip 3. 새벽 일찍이나 늦은 밤에 SRT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www.srtplay.com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자. 티플예약을 활용하면 첫차와 막차는 최대 50%가 할인된 금액으로 SRT를 이용할 수 있다.

고창‘에서’ | 여행 정보 플랫폼

고창군 관광 안내

tour.gochang.go.kr / @visit_gochang

고창군청에서 여행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축제, 계절별 명소, 관광지 정보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뚜벅이 여행자라면 홈페이지 > 고창 관광정보 > 교통안내에서 ‘고창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보길 추천한다. 시티투어버스는 석정온천 관광지, 고인돌박물관, 운곡람사르습지, 선운사 등의 고창 주요 여행지를 순회하며 주말과 공휴일에 1일 2회 운영한다.

고창문화관광재단

gctf.or.kr / @gochang_gctf

고창의 문화예술을 흡뻑 느낄 수 있는 여행을 원한다면, 고창문화관광재단의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주목하자.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전시, 공연, 문화프로그램 등 고창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창군 이외 거주자는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여행 지원사업 ‘고창한밤’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추천한다.

행동하는 생태교육센터 함께지구

@with_gigu

고창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존된 곳이다. 좀 더 생태적인 감각으로 고창을 마주하고 싶다면, 비영리 환경단체 ‘행동하는 생태교육센터 함께지구’의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멸종 위기 철새 텁새 프로그램, 고창 갯벌 해양쓰레기 플로깅 등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고창농악보존회

gochanggut.kr / @gochanggut

고창은 농촌사회 공동체 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농악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고창 농악이 등재되었다. 고창의 농악 문화를 엊고 있는 ‘고창농악보존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공연, 축제, 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다.



전북농촌여행 침참

chamchamtrip.com

고창 농촌의 가치를 느껴보고 싶다면,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전북농촌여행 플랫폼 ‘침참’을 활용해보자. 멜론호떡 만들기, 복분자 족욕 등 고창의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과 농촌숙박을 예약할 수 있다. 현재 농촌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감+’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여행플랫폼 놀고팜

nolgofarm.com / @actibooky.official

농어촌 여행 콘텐츠를 찾고 있다면, 농어촌여행플랫폼 ‘놀고팜’을 추천한다. 홈페이지에서 고창을 검색하면 만들어 촌체험마을의 ‘조개잡이’, 강선달마을의 ‘복분자스무디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캠핑장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전북 치유관광의 일환으로 기획된 ‘서울출발 → 선운사&선운산생태숲 → 석정온천휴스파 → 서울도착’ 당일치기 여행 상품을 39,000원으로 저렴하고 실속있게 즐길 수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

@gochang_lover

고창군민이 전하는 고창 정보가 궁금하다면, 인스타그램 고창러버를 추천한다. 고창의 식당, 카페, 즐길 거리를 직접 이용한 경험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고창지역관광협의회 하이고창

@hi_gochang

고창 관광 발전을 위한 모임으로, 고창지역관광협의회에서 소개하는 고창군의 관광정보를 만날 수 있다.

우리 유산의 가치를 알고,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다

고창 유네스코 유산 아카데미를 마치며

글/사진 한지혜 (고창문화관광재단 관광팀 사원)



고창은 유네스코 주요 프로그램 6개 부문에 모두 등재된 지역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고인돌, 세계자연유산으로 고창갯벌,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판소리와 농악이 등재되었고, 고창군 전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하며, 이번 연도엔 세계기록유산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세계지질공원이 등재되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유네스코 유산 관련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 자긍심 고취 및 보유한 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함으로써, 유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보존하고자 한다. 이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며, 이번 아카데미는 고창의 유네스코 자원을 활용한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로 기획하게 되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국제 유네스코 본부는 유네스코학교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인권, 평화,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과 같은 유네스코의 이념을 학교에서 배우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창군 영선중학교, 영선고등학교, 고창북고등학교 총 3개교가 유네스코학교에 선정되어 활동해 오고 있는데, 이번 유네스코 유산 아카데미는 영선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영선중학교 학생, 교사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8월 23일에 열린 특강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권송 선임전문관이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정용시 선임전문관이 ‘기후변화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 학생은 강의를 듣고 고창의 갯벌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생물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쪽지에 적어 질문을 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유네스코의 활동과 정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유네스코 유산 아카데미 첫 번째 강의는 유네스코 종류와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책마을 해리 이대건 촌장과 함께 고



창 지역문화 현황 및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강의는 고창 지역에 있는 문제점을 아카데미 참여 학생들 스스로 고민해 보며 해결 방안들을 논의해 보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참여 학생들이 각 6명 씩 3개 조로 나누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폐교에 대한 유네스코 유산과 연계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위한 ‘고창 지킴이 빛나리 조’와 문화재 이동 수단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한 ‘못 찾겠다 꾀꼬리 조’, 그리고 인류무형문화유산 고창 농악을 알리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한 ‘북치고 장구치 조’로 구성되었다. 이어 각 주제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강의는 고창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네스코 활동가와의 만남에 함께지구 최선하 대표가 고창의 갯벌과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하여 강의했다. 강의를 통해 한 학생은 불법 어구, 어망에 대한 규제 방식 등 다양한 해양 생태계의





문제점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쏟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강의는 핑크로더 양화니 대표가 진행하였으며 체인지메이커 과정을 통해 유네스코 유산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 그 방안을 발표하는 활동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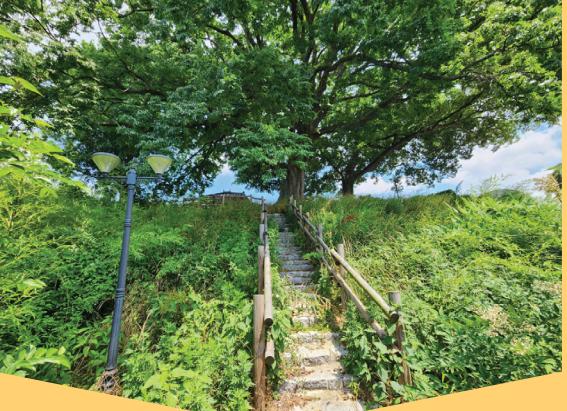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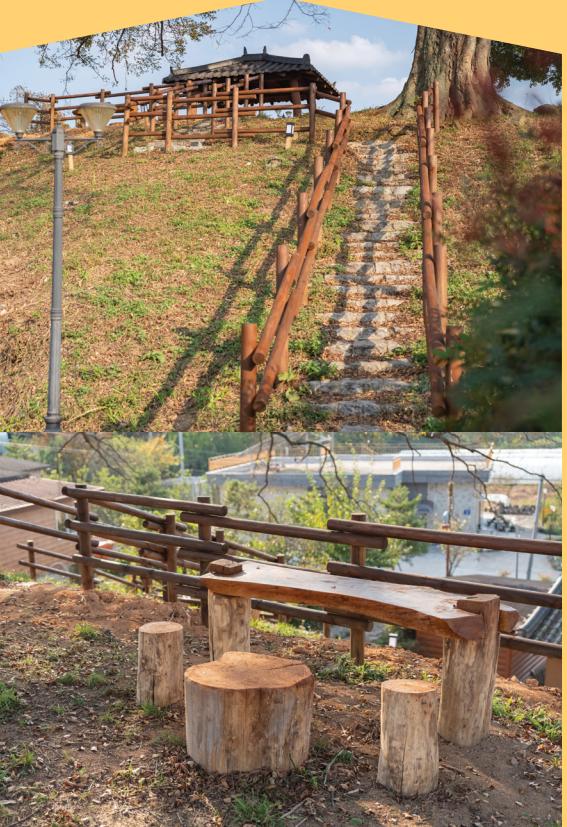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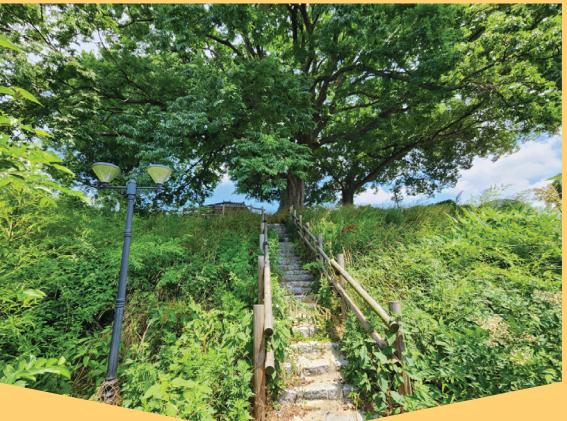
고창 유네스코 유산 아카데미는 5차시로 진행되어 총 18명이 수료하였다. 아카데미를 수료한 참여 학생들은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고장 고창의 유네스코 유산을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정규 학교 프로그램 이외에 색다른 활동을 통해 즐겁게 집중할 수 있었다는 후기를 전해주었다. 고창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함께 해준다면, 고창이 지닌 소중한 자원과 유산은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고창문화관광재단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소중한 유산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마을 찬란하게

글/사진 정재연 (고창문화도시센터 치유특화팀 팀장)

고창문화도시센터에서는 마을 풍경을 아름답게 바꾸고 생활 속 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 마을 문화경관 조성 사업 <우리마을 찬란하게>를 6월부터 펼치고 있습니다. 15개 마을이 지원했고 총 10개소 마을(고창읍 수복마을, 고창읍 성복마을, 고창읍 도산마을, 아산면 부정마을, 아산면 용계마을, 무장면 신월마을, 대산면 산정마을, 성내면 동산마을, 흥덕면 수침마을, 무장면 대산마을)이 선정 되었습니다. 각 마을은 예술가들과 매칭되어 어떻게 마을을 꾸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직 사업은 진행 중인데요. 함께하고 있는 10개의 마을 중 사업이 완료된 네 곳을 소개합니다.



1. 고창읍 도산마을 - 카페랑공방이랑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정자를 세워 정원으로 활용했던 공간에 풀이 무성해졌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풀을 정리하고, 땅을 다져 넓은 공터를 만들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커다란 그늘 아래로 꽃을 심고 벤치를 새로 놓았더니 다시 주민들이 찾아오는 우리 마을 쉼터가 되었습니다.

2. 고창읍 성복마을 - 미소엘 아트

1990년에 지어져 기울어진 듯 보이는 역사 깊은 한일맨션의 담벼락에 섬세한 벽화가 생겼습니다. 차들이 다니는 도로변 담벼락에는 신명나는 판소리가, 마을로 들어가는 골목길 담에는 사슴과 수달, 나비가 쉬는 자연이 그려졌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귀여운 동물들이 함께하니 한층 밝아진 느낌입니다.



3. 고창읍 수복마을 - 미소엘 아트

모양성과 군청 사이에 건물이 철거된 후 철거물 잔해가 오랜 기간 남겨져 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이 공간의 공허함을 지우기 위해 가설벽을 세우고 그 위로 고창의 유네스코 유산 7가지를 그려 넣었습니다. 허전함이 있던 공간에 자부심이 세워졌습니다.

4. 대산면 산정마을 - 그림그리는 사람들

산정마을에 들어서면 마을회관 앞에 폐비닐을 모아놓았던 공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둘 쌓인 쓰레기가 철책을 넘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이곳의 폐비닐을 치우고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벽을 쌓아 해바라기와 나뭇잎 배 동요의 가사로 꾸몄습니다. 쓰레기가 보이던 마을회관 앞은 동심을 꿈꾸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식지 <고창! 문화를 읽는 창>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함께 그려나가는
새로운 창(巻)을 말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이슈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 쓰는 고창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운도장전수관에 전시되어 있는 운도의 모습으로,
나무로 된 원형 판에 4방위와 팔괘, 십간, 십이지
등이 새겨져 있다. | 김종대作

펴낸 날 2023년 12월 10일
펴낸 곳 (재)고창문화관광재단
펴낸 이 심덕섭
책임편집 안종선
기획 윤여준, 황지원
편집 윤여준 | 스튜디오 쥬쥬베
교정교열 김원재
디자인 이아모 | 스튜디오 실버라이닝
등록일 2020년 07월 21일
등록번호 제고창-바-00100호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361
전화 063-561-1110
팩스 063-561-5556
홈페이지 www.gctf.or.kr

ISSN 2733-9971

<고창! 문화를 읽는 창>은 (재)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외부 필자의 글은 고창문화관광재단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창이 품고 있는 ★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가지'

